

회교국에 佛音 첫 전파 탄다

대만자제기금회, 인도네시아서 시험방송 파이아이TV 분원개설 허가... 내년 2월 개국

‘무슬림 나라에 부처님의 말씀이 첫 전파를 탄다.’
독일 언론 아젠투르(Agentur)는 대만 파이아이(大愛)TV의 커 추안푸 대변인 말을 인용, “회교국 인도네시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텔레비전 설립에 진출했다”며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파이아이TV의 현지 분원 개설에 대한 허가를 얻었다”고 11월 10일자로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대만불교자제자선사업기금회(臺灣佛敎慈濟慈善事業基金會, 이하 자제기금회)가 운영하는 파이아이(大愛)TV는 올 10월에 인도네시아 현지 언어로 매일 1시간씩 시험방송을 하기 시작했으며, 내년 2월에 정식으로 TV 방송국을 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제기금회의 인도네시아 현지 TV 개국은 회교국가에서 처음으로 건립되는

불교방송국으로, 대만불교계는 향후 이슬람교 국가권의 불교포교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제기금회는 1998년 1월 타이베이, 화니엔 등 5개 지역에 위성방송,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갖춘 파이아이 TV를 개국하는 등 문화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파이아이TV는 첫 단계로, 4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제작해 2천만 명이 사는 자카르타와 메단 지역에 하루 종일 반복해 방송할 계획이다. 미전파 지역인 수라바야와 반둥 지역까지도 방송 송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파이아이TV는 인도네시아가 회교국인 점을 감안해 정치 관련 뉴스보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신에 ‘자비희사(慈悲喜捨)’와 ‘제빈구난(濟貧救難)’으로 집약되는 자제 정신으로, 가난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을 돕고 용기를 주는 내용을 취재·보도하기로

했다. 이 같은 편성은 정치·경제 사건을 지양하고 철저히 ‘사람 사는 모습’을 취재하려는 파이아이TV 지침에 따른 것. 실제로 파이아이TV가 자원봉사자의 미담사재를 밀착 취재해 제작한 ‘대애극장(大愛劇場)’ 프로그램은 대만 내 시청률 순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인기가 많다.
한편 자제기금회는 ‘대만의 성모 테리사 수녀’로 불리는 정연(證嚴) 스님이 1966년 설립한 불교단체로, 전 세계 28개국 수만명이 자제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단체는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현금과 구호물품을 지원해오고 있다. 회교국 인도네시아와의 인연은 자제기금회가 지난해 반다 아체(Banda Aceh)에 3700 가구를 위한 ‘파이아이 마을’ 건립과 5개 학교를 설립해준 데에서 비롯된다. 인도네시아 반다 아체지역은 지난 2004년 인도양 12개국



자제자선사업기금회가 설립·운영하는 타이베이시에 위치한 파이아이 TV의 본사 전경. 사진제공=파이아이(大愛)방송국

23만여 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간 쓰나미 참사의 최대 피해지역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nia.com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태국 남부 스님들 탁발 중단

태국이나 스리랑카와 같은 상좌부 불교국가에서는 매일 아침 스님들이 절에서 나와 줄을 지어 탁발에 나서는 것이 중요한 일과 중 하나이다. 세월이 흘러 환경이 변해도 ‘승가는 부처님 법을 신자들에게 전하고, 재가 신자들은 스님들이 원만한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공양한다’는 ‘승가-재가’ 간의 기본 원칙은 바뀌지 않고 있다.
노란 승복을 입고 입을 꼭 다문 채 탁발에 나서는 스님들의 행렬과 신도들이 그분들에게 정성스레 공양을 올리는 광경을 대하면, 설사 신심 깊은 불자가 아니더라도 경외심을 느끼게 된다. 세상이 변해서 굳이 이런 방식이 아니어도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상좌부 불교권에서 ‘탁발’은 살아있는 문화이고, 이제는 버릴 수 없

정부에서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지만 반란군의 표적이 되는 마을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11일에도 반란군이 폭격을 가해 민간인 4명이 숨지고 국경 경비 경찰 2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왕세자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다룰 청문회를 열도록 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농민과 학교 경비원들을 총기로 난사하고 지역 학교 교사의 사택에 불을 지르는 일까지 벌어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히려 전근대 시대에는 이 지역 ‘불교도와 무슬림’들이 함께 어울려 잘 살아왔다. 그런데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여 서로 간의 ‘소통’이 훨씬 더 빨라진 오늘날

분리주의자들 잇따른 테러로 불가피한 상황

문화로 자리잡은 장엄한 행렬 사라질까 우려

는 전통이 되었다.

그런데 11월 12일 태국 영문 일간지 <방콕 포스트>가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태국 남부에서 계속되는 테러 때문에 ‘버려서는 안 되는’ 이 문화 전통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반란군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나라티왓(Narathiwat) 지역의 스님들이 13일부터 무기한으로 아침 탁발을 중단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은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 최남단 지역의 지도자 스님들의 회합에서 결정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스님들과 불교 신자들에게 대한 공격이 점점 가열되고 있으며, 이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침 탁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 불교계의 판단인 것이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승가 대표와 경찰 및 군 당국간의 회합이 예정되어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란군의 공격을 피해 사찰로 찾아와 피난처를 구하고 있고, 이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소통’이 더 막혀가는 것이 아닐까?

이 지역 반란군이 주로 이슬람교도의 분리를 요구하는 무슬림들이고 이들에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주로 불교도들이라고 해서 “무슬림 타도!”를 외치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테러리스트들의 표적이 되어 자칫하면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아침 탁발을 중단하기로 한 승단 지도자들의 결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탁발 중단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끌어내는 일 또한 승가에 주어진 임무일 것이다.

어쨌든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아침 탁발에 나서는 스님들의 장엄한 행렬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어 태국 승가에서 아예 탁발이 사라지고 신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자유기고가

세계침술봉사학회, 활동무대 전 세계로 (WASA)

내년 LA에 한의대 개설 남미·중앙아 등 진출 계획 UN공식 NGO 등록 추진

‘침술봉사의 활동 무대를 전 세계로 넓힌다.’
세계침술봉사학회(WASA-World Acupuncture Service Association, 이하 와사)는 2007년 4월 미국 LA 벨리 지역에 4년제 정규 한의대를 개학하는 것을 기점으로, 활동영역을 인도 중심에서 미국으로 확장한다. 이에 따라 와사 본부도 미국으로 옮기는 한편, 현재 인도 8개주에서 운영 중인 침술대학 4곳, 침술센터 20곳도 재정비한다.
와사(WASA)는 1998년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 등록된 NGO. 그 모체는 30년간 침술봉사활동을 벌여온 불가침 구학회가 1993년 인도 아난다나가르의 과대학에 침술과정을 개설하면서 국제



2005년 티베트 가덴장세 승가대학에서 와사가 펼친 침술봉사활동. 와사는 30년간 인도·네팔 등에서 침술로 불교의 무주상보시를 실천해오고 있다. 왼쪽에서 세번째가 이홍재 회장. 사진제공=와사

봉사단체로, 현재 국내외에서 5백여 명이 활동 중이다.
와사가 이번에 문을 열 ‘아메리칸 베달 유니버시티’는 한의학, 경영학, 영문학 등 3개 학과로 구성된다. 학생모집은 학기당 10명씩 총 40명을 선발하며, 전

원 장학금을 지급한다. 특히 와사가 그간 진행해온 ‘침술봉사 인재양성 사업’에 일환으로, 졸업생은 의무적으로 인도, 네팔 등지에서 침술교수인력이 돼서 현지교육과 봉사를 맡게 된다.
이 같은 와사의 한의대 설립은 ‘활동

마당 넓히기 프로젝트’에 따른 것으로, 향후 와사는 남미, 중앙아시아 등으로 봉사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멕시코를 중심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침술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홍재 와사 회장은 “한의대 건립에는 기존 인도·네팔 중심의 와사 활동 영역 축을 미국으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남아메리카, 아즈텍 문화권에 지부를 개설은 물론 와사를 유엔(UN)이나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와사는 이와 함께 기존 사업인 풀뿌리 운동 가운데 티베트 사찰, 단체 교육기관과의 유대관계 및 자매결연 등의 사업도 그대로 진행한다.

김철우 기자

‘풀뿌리운동’ 후원 방법

1구좌는 1개월에 3만원. 이 1구좌로 티베트 스님 한 명의 한 달간 숙식 및 학비가 해결된다. 1개월 또는 1년(10개월 기준, 30만원) 단위로 보시가 가능하며 일정 금액에 한해 별도의 개인보시도 가능하다. (010)3176-0772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 인등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중등



팔각봉축집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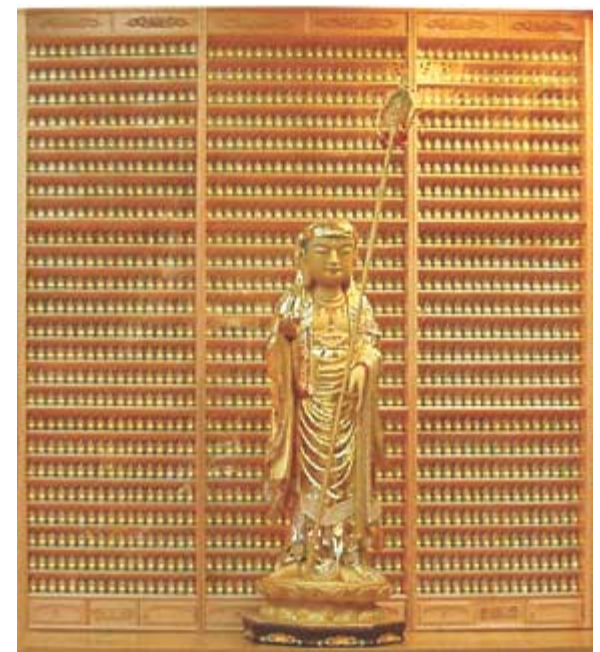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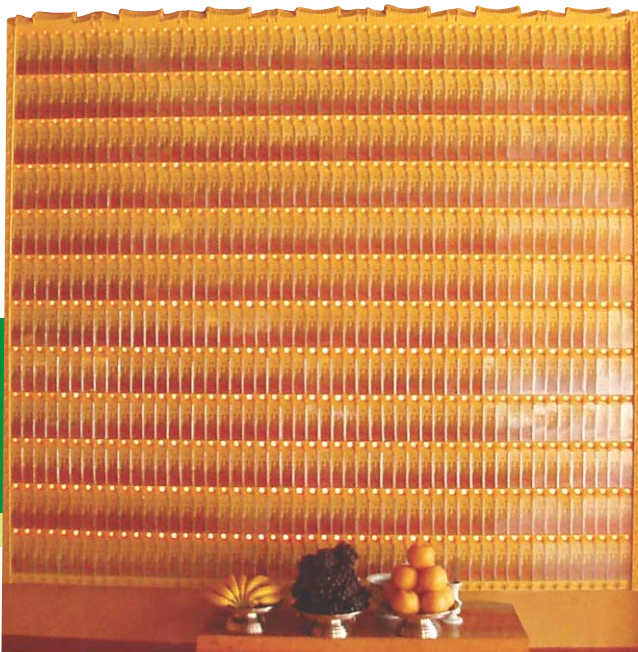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공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케이블은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주름등·법당전신시공·영구위패·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